

‘원위(ONEWE)’, 10년 역사 흐름에서…밴드의 시대 만나다

군백기 마치고 완전체 컴백…K팝 아이돌 밴드 주목
다섯 멤버가 같은 꿈을 모여 음악을 해온 지 10년째

바야흐로 K팝은 밴드의 시대. 조용하고 성실하게 내실을 다져온 밴드 ‘원위(ONEWE)’가 지지개를 끈다. 다섯 멤버가 같은 꿈을 모여 자신들이 만든 음악을 해온 지 10년째. 준비된 자가 기회를 잡는다는 말을 눈앞에 실현시킬 일만 남았다.

신보 ‘플래닛 나인 : 아이소트로피(Planet Nine : ISOTROPY)’는 여러 의미에서 원위에 뜻깊은 작업물이다. 용훈(29·메인보컬)과 강현(25·기타)이 전역 후 완전체로 발매하는 앨범이라는 점에서 첫 시작 같다. 모든 멤버가 자작곡을 수록하며 음악성을 보여주는 인증서이기도 하다. 리더인 용훈은 “데뷔 앨범을 내는 마음으로 이를 갈았다”고 강조했다.

타이틀 ‘추억의 소각장 (Beautiful Ashes)’은 원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곡이다. 용훈과 기욱(24·랩 겸 베이스)이 작사·작곡을 하고, 강현과 하린(26·드럼)이 편곡을 했다. 그리움과 후회를 가감 없이 표현한 슬픈 가사와 서정적인 멜로디가 특징이다. 원위만의 벽차오르는 분위기로 가득하다.

리스너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지리스닝의 틀을 유지했고, 공감을 더하도록 10년의 가사 수정을 거쳤다. 작업할 때마다 곡자의 의견을 전적으로 믿어주는 멤버들은 이번에도 팀워크를 발휘했다. 용훈은 “후렴 부분을 딱 한 번 들려주고 따라 부르라고 했다. 몇 명은 따라 부르더라. 쉽진 쉽진 않다. 확신을 얻었다”고 했다. 동명(24·보컬 겸 키보드)은 “조안을 들었을 때 파트도 안 정해져 있는데 각자의 목소리나 장점이 보이고 들리는 것 같았다. 이거다 확신이 들었다”고 밝혔다.

용훈은 “원위 표. J팝스러운 곡”이라고 소개를 덧붙였다. “J팝은 서정적인 곡들도 많은데 비트는 빠르다. 슬프면서 벽차오르는 게 많

다”며 “멤버들에게 추상적으로 오더를 내렸는데 찰떡같이 알아듣고 편곡을 잘 해줬다”고 만족했다.

강현은 “처음 듣자마자 원위의 색깔이 짙게 나오는 곡이라고 생각했다. 악기들의 색깔을 덧입혀 원위의 색이 나오게 작업해야겠다 싶었다”고 했다. 하린은 “J-밴드의 노래를 되게 좋아하고 워낙 그런 노래를 많이 듣다 보니까 용훈이 형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얼추 알겠더라. 너무 J팝스러우면 리스너들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저희만의 방식으로 어울릴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멤버들에게 이번 작업은 설렘의 연속이었다. 팀을 결성하고 한 번도 서로 떨어져 본 적이 없는 멤버들이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달았기 때문이다. 실용음악학원에서 만나 버스킹부터 시작해 ‘MAS 0094(마스 공공구사)’라는 이름으로 데뷔하고, 원위로 이름을 바꿔 재데뷔하기까지 이들의 역사는 유구하다. 역사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은 더 커졌다. “멤버들끼리 모인 지 10년이 넘어서 돈독한 걸 넘어서 삶의 일부가 된 느낌이에요.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의 원이 됐다는 느낌이에요.”(하린)

동명은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게 느껴졌다. 남은 3명의 멤버들이 솔로로 활동했는데 원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였다”고 털어놨다. 기욱은 “솔로 활동을 하면서 실력적으로 많이 늘었지만 약간 외로움이 있었다. 형들의 반지라가 이렇게 컸다. 걸 실감했다”며 “한시라도 빨리 형들이 와서 완전체로 활동하고 싶었다”고 애정을 드러냈다.

“개인적으로는 심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았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오랫동안 익숙한 것들이 떠나기면서 공백을 메울 수 있

는 게 없다고 느껴서 더라고요. 버티기 힘들었는데 (완전체 합주 후) 웬지 모르게 이 자리가 매워졌어요. 어색한 기운도 돌면서 익숙하고 설레는 감정이었어요.”(하린)

원위의 열정이 다시 충전되는 지금은 재도약하기 딱 좋은 시기다. 최근 데이식스, 루시 등 아이돌 밴드의 음악이 음원 차트에서 역주행을 하는 등 주류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원위는 10년간 밴드 생활을 해 온 팀으로서 지금의 분위기가 남다르게 느껴진다. “감사한 일이에요. 불과 2018-19년도만 해도 ‘밴드 음악은 메이저가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만큼 시대가 많이 변했죠. 저희도 노력했고 다른 밴드들도 많이 노력해서 인기를 체감하는 것 같아요. 이제 K팝 시장에서 메이저가 됐구나 싶어요. 그런데 저희가 같이 이름을 올리는 것에 동조해도 되나요?”(동명)

설 수 있는 무대가 많아진 건 고무적인 현상이다. 멤버들은 이전에는 음향 시설의 열악함과 밴드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에 MR 공연을 권유받는 일도 많았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는 존중받을 수 있는 무대가 생기고, 주변의 인식도 많이 달라졌다고 같은 소속사 아이돌 그룹 ‘원어스’ 멤버 시은(24)과 쌍둥이 형제인 동명은 특별히 더 이런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아이돌들은 상대적으로 TV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나도 쉬고 있는 건 아닌데, 공연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제 밴드도 TV 틀면 많이 나온다. 집안에서 현재 나의 입지는 높다. 이번 앨범으로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원위의 이상향을 그리고 있는 밴드는 데이식스다. 수년 전 곡이 우연한 기회에 역주행을 하고, 덩달아 명곡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그림이다. 원위 역시 차곡차곡 좋은 노래들을 쌓아왔기 때문에 언젠가 조명 받을 날들을 기다리고 있다. “저희가 자부하는 건 히트곡 하나가 생기면 그동안 냈던 곡도 올라올 것 같다는 거예요. 이전 곡들도 심혈을 기울여서 작업했거든요.”(강현)



목표로 삼고 있는 건 가요 시상식이다. 데뷔 이래로 한 번도 시상식 무대에 선 적이 없다. 동명은 “시상식을 보면 그 해 가요계에서 가장 잘 된 팀들이 나오지 않아요. 밴드가 하이лай트 순서에 나올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면, 그게 우리였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그랬듯 조금씩 생각하진 않는다. 밴드의 장점을 장수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용훈은 “얼마 전에 재계약을 했다. 그걸 계기로 멤버들끼리 이야기를 많이 했다. 마음

만 맞으면 하고 싶은 음악을 오래 할 수 있지 않냐고”라며 “우리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하나에 빠지면 그것에 관한 곡을 쓴다. 그 상황에 맞게 곡을 내면서 철없이 지내지 않을 거 같다”고 청사진을 그렸다.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누구 노래 같다는 말을 하잖아. 앞으로 어떤 노래를 듣고 ‘원위 노래 같다’는 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원위라는 팀 이름 자체가 장르에 가까워졌으면 해요.”(동명)

“원위가 곧 장르입니다.”(용훈)

배우 변요한 “한산보다 자신있어…깜짝 놀랄 영화다”



“한산’보다 더 자신있습니다.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배우 변요한이 자신감에 가득 차 돌아왔다. 영화 ‘한산: 용의 출현’에서 일본 장군 와키자카 야스하루 역을 맡아 각종 영화제에서 상을 휩쓸었던 변요한이 이번엔 관음증 공인중개사가 됐다.

◇ ‘메이저 3관왕’ 변요한의 컴백

2011년 독립영화 ‘도요근무’로 데뷔한 후 30편 이상의 독립영화에 출연했던 변요한은 당시 영화계에서 ‘배역을 가리지 않는 괴물’이 독립영화계에 있다는 평을 받았다. 드라마 ‘미생’(2014)의 한석울 역으로 이름을 알린 후 드라마 ‘구여친클럽’(2015), ‘미스터 션샤인’(2018), 영화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2016), ‘보이스’(2021)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에서 뛰어난 연기력을 선보이며 영화계의 평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이런 변요한의 커리어는 2022년 정점을 찍었다. 변요한은 ‘한산: 용의 출현’(2022)으로 ‘메이저 3대 시상식’이라 불리는 대종상, 청룡영화상, 백상예술대상에서 모두 남우주연상을 거머쥐었다.

하지만 변요한은 부담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는 듯했다. “‘그녀가 죽었다’ 촬영이 수상 전

영화 ‘그녀가 죽었다’ 제작보고회

이었어요. 수상을 하기 전에도, 한 후에도 촬영을 하는 저는 어떤 변화도 없었어요. 그리고 ‘한산’보다도 자신 있습니다. 아마 시사회에 오실 김한민 감독도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 변요한의 팬, 감독이 되다

“변요한 배우가 제 각본을 재밌게 읽어 주시고 참여해주셔서 성적이 됐어요.”

17일 오전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영화 ‘그녀가 죽었다’ 제작보고회에서 김세휘 감독은 변요한과 함께 작업한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이 영화는 타인을 관찰하고 훑쳐보는 게 취미인 공인중개사 구정태(변요한)가 주된 관찰 대상인 소설미디어 인플루언서 한소라(신혜선)의 죽음을 우연히 목격한 후, 자신이 범인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진실을 추적하는 스릴러물이다.

‘그녀가 죽었다’는 영화 ‘멘탈’(2014)을 시작으로 ‘치외법권’(2015), ‘덕구’(2018) 등의 제작에 참여했던 김 감독의 연출 데뷔작이다. 89년 생인 김 감독은 이 작품 촬영을 시작하던 2020년엔 31세였다. 주연인 신혜선과 동갑이고 변요한과 이엘보다는 각각 3살, 7살이나 어리다.

배우들은 입을 모아 김 감독을 ‘천재’로 불렀다. 변요한과 신혜선은 “천재보다 더 높은 칭호가 있다면 붙여주고 싶다” “자신의 일을 즐기는 것과 의도를 영화에 그대로 녹여내는 천재들의 능력을 가진 것 같다”고 평했다.

이러한 평가에 “쥬구멍에 숨고 싶다”며 민망해 한 김 감독은 “당초 예정보다 개봉이 2년 정도 밀렸는데, 오히려 원래대로 순조롭게 개봉했다면 스스로 건방졌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시간이 오히려 생각할 시간이 됐다. 촬영할 때는 몰랐는데 돌아보니 (영화를 만드는) 모든 과정이 기적이었따”고 말했다.

김 감독은 변요한을 캐스팅한 이유를 팬심이라고 설명했다. “원래 변요한 배우의 팬이예요. 출연하셨던 영화 ‘들개’(2014)랑 ‘소셜포비아’(2015)를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하나’ ‘눈으로 다 얘기하는구나’라는 생

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팬이 되고 변요한 배우가 출연한 작품들을 다 찾아보기까지 했었는데, 제 각본을 재밌게 읽어 주시고 참여해주셔서 ‘성적’이 됐어요.”

◇ 비정상적 캐릭터, 경쾌한 스타일러

김 감독은 영화를 소개하며 “캐릭터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수차례 말했다. 변요한 역시 “한국 영화에서 보지 못했을 캐릭터”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 김 감독은 내레이션 사용과 공간 연출을 집중했다. 김 감독은 “영화에서 내레이션을 많이 썼다. 캐릭터들이 정상적이지 않고 음흉한데 끊임없이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는 비호감 캐릭터다. 그들의 행동을 미화하려는 생각은 없었고, 구정태와 한소라에게 관객분들이 상황적 이입들을 할 수 있도록 내레이션을 통해 ‘저 사람의 변명을 계속 들려주자,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알게 하자’는 생각이었다”고 했다.

또한 김 감독은 구정태만이 알고 있는 그의 창고를 ‘한눈에 봐도 뜨악스럽고 소름끼치는 공간’이라고 정의했다. 김 감독은 “저는 이 창고를 구정태의 일기장이라고 생각했다”며 “나는 일기를 쓸 때 누가 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문장을 다듬는다. 그래서 구정태도 누가 볼 거라 생각하고 가져다 놓은 1차 공간이 있는데, 창고는 아무도 못 봐서 자신이 신성시 하는 2차 공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벽지를 가져오는 것도 그때 자기가 방문한 집을 기억할 수 있게 가져오는 거다. 그 창고를 저는 ‘구정태의 컬렉션 룸’이라 본다”고 말했다.

‘무겁지만은 않은 경쾌한 스타일러.’ 자기 영화에 남긴 김 감독의 한 줄 평이다. 김 감독은 “어쨌든 스타일러라는 장르라보니 톤다운을 할 수 밖에 없었지만, 변요한 배우가 유머러스하고 특이한 시도를 많이 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이상한 웃음이 나는 테이크가 있었는데 그게 구정태와 너무 찰떡이었고 웃을 수밖에 없었다. 지루하지 않고 재밌다”고 자신했다. 마지막으로 변요한은 ‘김세휘 감독이 왜 천재인지 영화로 증명하겠다’며 기대감을 높였다. “‘그녀가 죽었다’는 다음 달 개봉 예정이다.

대세 데이식스(DAY6), 6년 만에 ‘서재페’ 뜬다



K팝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는 밴드 ‘데이식스(DAY6)’가 국내 대형 음악 축제 ‘서재페스티벌’에 6년 만에 출연한다. 17일 공연 주최사 프라이미티브에 따르면 데이식스는 오는 5월31일~6월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네 개의 무대에서 펼쳐지는 ‘제16회 서울재즈페스티벌 2024’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공연 첫날에 출연하는 데이식스는 ‘예뻐어’와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로 음원 차트 역주행에 성공했다. ‘헬릭 투 더 쇼’를 비롯 지난달에 발매한 미니 8집 ‘포에버(Forever)’ 수

록곡 전부가 음원차트에서 호성적을 거두며 대세임을 입증하고 있다.

지난 주말엔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3600명도 개방형 객석 공연을 열어 3일 간 총 3만 4000명을 모으며 티켓 파워를 확인하기도 했다. 신인답이었던 2018년 무대에서조차 호연했던 만큼, 더 성숙해진 이번엔 더 파괴력 있는 공연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식스를 포함한 이번 6차 라인업엔 싱어송라이터 겸 래퍼 키코, 힙합 신의 대세 원슈타인, 버클리 음대 출신의 재즈 피아니스트 지민 도시, 섬세한 미성의 싱어송라이터 하현상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번 서울재즈페스티벌 59팀의 라인업이 모두 공개됐다. 미국 팝스타 라우브(Lauv), 그레미 8관왕에 빛나는 프랑크 윌드뮤직 그룹 짐시킹스(Gipsy Kings), 빈티지한 사운드와 챔버팝 그룹 잔너비, ‘2024 한국대중음악상’의 최우수 재즈 보컬 음반 부문 수상자인 재즈 보컬리스트 김유진 등의 무대가 눈길을 끈다.

‘기생수’ 넷플릭스 영어·비영어 통합 1위

연상호 감독이 내놓은 새 시리즈 ‘기생수:더 그레이’가 전 세계 넷플릭스 시청 순위 통합 1위에 올랐다.

‘기생수:더 그레이’는 넷플릭스가 17일 발표한 8-14일 시청 시간 순위에서 조회수 980만회를 기록해 비영어 TV 부문 최상단을 차지했다. 2위 ‘나쁜놈들’(500만회)이었다. ‘기생수:더 그레이’ 조회수는 영어 TV 부문을 포함해도 가장 높았다. 영어 TV 부문 1위는 ‘삼체’로 480만 회였다.

지난 5일 공개된 이 작품은 정체불명의 기생생물이 지구에 등장하고 인간의 몸을 숙주 삼아 뇌를 장악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부산행’(2016) 등을 만든 연 감독이 각본과 연출을 맡았고, 전소니·구교환·이정현·권해효



들이 출연했다.

원작은 일본 이와야키 히토시 작가가 1988~1995년 연재한 만화 ‘기생수’다. 바디 스내처(Body Snatchers·신체 강탈)로 불리는 장르물로 전 세계에서 약 2500만부 판매됐을 정도로 큰 인기를 모았고, 걸작이라는 평가를 받는다.